

2005 CES '한국 물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개막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2005 CES'에서 한국 기업의 선전이 단연 눈에 띄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CES에서 부스 크기는 물론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경쟁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반면 그간 세계 가전시장을 장악해왔던 소니, 마쓰시타, 도시바 등 일본 기업들의 위상은 한 단계 떨어졌다는 평이다.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컨벤션 센터 입구에서부터 시작됐다. 컨벤션센터 건물 외벽은 물론 버스정류장 안내판, 도로 주변 깃발 광고 등은 모두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차지했다.

메인 전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참가업체 가운데 최대 부스규모로 참가한 삼성전자 전시장은 넘쳐나는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전시장 면적은 697평으로 미팅룸까지 합하면 1,000평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TV'라는 제목으로 출품된 102인치 PDP TV 앞은 하루 종일 사진을 찍으려는 관람객들로 넘쳤다.

삼성전자는 특히 6일(현지시간) CES쇼 개막에 앞서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업설명회(IR)도 진행,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뽐냈다.

LG전자도 전시장 규모를 지난해 보다 두배나 넓혔으나 하루종일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VOD·AOD 동영상촬영과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MP3 기능을 갖춘 3G 휴대폰과 양산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큰 사

이즈인 71인치 PDP TV가 기술력을 뽐내면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미래기술로 선보인 3차원 디스플레이도 관심을 끌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도 지난해보다는 30% 정도 더 확대한 250여평 규모로 참가, 42~62인치 PDP TV와 등을 전시했는데 음성 필터링 디지털TV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현대종합상사도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만든 PDP TV 등을 '현대' 브랜드로 선보였고 LG필립스 LCD도 미팅룸에 제품을 전시했다.

반면 전통적 강자였던 일본 기업들은 세계 최대 LCD TV인 65인치 제품을 선보인 샤프전자와 65인치 PDP TV를 내놓은 마쓰시타가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에 그쳤다.

일본의 대표 가전기업인 소니는 별도 독립전시장을 준비했으나 센트럴 홀 중앙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하면서 관람객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